

< 論 說 >

診療業務의 混線을 바로잡자

鄭 益 鎔

年前부터 物議가 열기 시작했던 것이기는 하나 今年에 접어들면서 놀랄만큼 많이 診療業務의 混線에 對해 口頭 또는 書信으로의 抗議를 받았다.

그 內容인즉 서울牛乳協同組合의 組合員에 對한 公開의인 診療行爲와 人工授精所에 從事하는 分들의 그것과 一部 大學教授되는 分들의 遊擊診療에 對한 猛烈한 抗議들이다.

그 때마다 나는 社會經濟的面에서 보잘것 없는 位置에서서 바둥거리는 一般公開業獸醫師들의 딱한 心情에 나란히서서 곰곰히 생각해본다.

無免許者들의 診療業務에 對한 抗議가 아니고보니 이견 分明히 한 집안끼리의 아웅다웅이다.

그러기에 서로 맞서서 法條文을 펼쳐두고 내가 옳거나 내가 그르거나 따지기도 칠부지 같고 이런 輿論들을 大韓獸醫師會나 農林部關係當局에서 재치있게 調整處理해 주면 좋을것 같아서 몇가지 私見을 곁들어 提言하는 바다.

數次的 個別的 討論에서 겪은바 法解釋에 있어 알송 달송한 面이 있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問題解決의 基本的인 方向은 于先 法精神에 忠實한 것을 前提로 하고서의 이야기들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먼저 서울牛乳協同組合의 境遇를 가지고 따져보기로 하자.

듣건대 四名의 專屬獸醫師로 하여금 巡廻診療을 하고 있다는게고 實費를 받아 組合에 正式藏人잡는다는다.

獸醫師免許證을 가졌다 해도 開業申告를 아니한 者가 家畜診療業務에 從事할 수 없는 것은 嚴然한 法的 既定事實이다.

實費로 診療하는 것은 業(廣意의 營業行爲를 말하는 모양이다)에 屬하지 않으니 自己組合員들의 福利를 爲하여 免許證所持者가 組合員의 請을 받아 診療하는 行爲는 違法이 될 수 없다는 主張이 맞선다.

甚至於 어저기에 가까운 極端論者에 이르러서는 牛젯을 豫防注射等을 養鷄業者 自身이 實施했다고 해서 犯法이라 하여 實際로 依法處斷들을 한 일이 있느냐고 反問한다.

그런것에다 比하면 그나마 有免許者가 하는게 약과가 아니냐는 제다.

嚴格히 따지자면 適正한 診療施設을하여 開業申告를 하지 않는 者가 完璧한 診療實效를 거둘 수 없는 것은 自明한 일이며 이런 未完으로 부터 人命이나 家畜의 損失을 未然救濟하기 위하여 國民醫療法이나 獸醫師法에서 다같이 法的 規制를 이렇게 한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기에 法解釋의 精神이나 法運用의 行爲는 當然히 이 法規制의 基本精神에 誠實히 服從해야 할 일이지 法制定의 盲點의인 틈바구니만 노릴려고 바둥거려서는 안될것으로 안다.

아무리 我田引水格인 論法을 들고 나온다 해도 現狀態대로의 公開的 診療行爲는 嚴然한 犯法이며 當該地域 公開業獸醫師들의 權益을 너무나 泰然히 짓밟고 있는 느낌이 든다.

事實上 宜當히 告發者로 看做되는 그들 公開業獸醫師들이 同志의인 體面에 못이겨 병어리 냉가슴 앓는양으로 하고 있는 것을 束手無策의 無能으로만 끝내 알잡아 봐서는 딱한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바깥 닦아서서 따지고 나오면 그럼 組合側으로서도 쏠혀 可能的 다른 方法이 없는 것은 아니니 어떤 有免許者의 이름으로 開業申告를 하고 거기 獸醫師를 數名採用하여 그들을 組合의 囑託이라고 委囑하는 形式을 取하여 얼마든지 診療를 할 수 있다는게다.

結局 形式이야 어쨌든 適法的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길이 있으니 끝내 診療行爲를 繼續하고야 말겠다는 다부진 決意다. 그러면 地方長官의 認可를 받은 家畜診療 報酬規程에 依據하여 診療費를 받아야 한다는 道義的인 골레가 유독 그들만을 外面에 줄 수 있을 것인가 말이다.

하기야 이런 각박한 世情에 그런 同志愛나 道義論이 뭐 그리 대수로운거냐고 하면 그도 그 뿐일듯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자. 組合의 診療業務 그 自體의 意義가 아무리 崇高하다 해도 우리 獸醫師끼리의 結束과 社會的地位向上의 當面한 緊要課題에 앞지를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組合側의 診療業務에 從事하는 獸醫師 同志들의 立場

을 이 以上 敵對視하여 曰可曰否하고 싶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한번 視野를 人口比나 産業比重等の 分野로 넓혀 볼 때 一九六二年以來로 急激히 膨脹되어 있는 酪農業이 아직도 企業化되지 못한채 零細的인 位置에 散在해 있는 現狀이고 이런 初創期의 軟弱性을 挫折에서 積極 救濟하기 위하여는, 組合의 그런 實費診療도 必要할 것이고 乳牛共濟事業措置도 잘한 일이며 또한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는 當然히 斃死發生의 最少限 減縮을위한 組合側의 強力한 自體對備策도 必要할 것으로 理解가 아니가는건 아니다.

그러나 一般公開業獸醫師들에게로 投入되는 全體酪農業者들의 乳牛診療費의 比重이 全般的인 酪農破産을 招來할만한 危穢線上에 놓일 程度라면 政府는 初創期酪農事業의 國家的 保護育成을 위하여 當該地域의 公開業獸醫師들에게 相當期間 生活保障이 될만한 手當增額이라도 하여 責任있는 實費診療를 實施토록 할 수 있을 것이고 組合側도 專屬獸醫師들에게 投入되는 費用으로 組合員이 布置되어 있는 重點的인 몇몇 地域의 精銳公開業獸醫師들에게 囑託으로 委囑하여 實費診療를 할수있게 하는 方法이 없지도 않다.

그들이 不誠實하거나 技術面에서의 進展이 없으면 即時로 交替하면 될 것이고 그러함으로 해서 責任性的 提高와 技術進展의 飛躍은 그 어느 形態보다도 빨리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컨대 組合側은 아무래도 專屬採用的 獸醫師들보다 責任感이 強할 수 없으며 技術面에서 뒤떨어질 것이라고 舊態依然하게 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나의 愚見으로서는 制限된 俸給에 얽매어 있는 專屬獸醫師의 그것보다는 意慾的인 면에서 無制限 競爭狀態에 놓여 있는 一般公開業獸醫師들이 앞설 것이고 診療 成果面에서 훨씬 能率的이라고 보는 것이다.

四名程도의 專屬獸醫師들로서 얼마나 한 機動力을 保有하고 診療에 從事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싸구려" 에만 등대고 있는 組合員들이 早期診療를 놓쳐 實費라 해도 結果的으로는 오히려 早期療診를 하니만 못한 주먹구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乳牛頭數가 稀少했던 때와 判異하여 지금쯤은 大動物 特別히 乳牛 診療 技術面에서도 믿음직한 臨床獸醫師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牛乳協同組合은 組合員들을 언제까지나 싸구려의 保守的 依存意識에만 맴돌게하여 企業經營技能에 뒤떨어지게 하지 말고 積極啓蒙하여 不遠한 時日內에 診療行爲面에서의 非正常을 止揚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懇切하다.

問題는 巨視的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달자식 귀엽다고 언제까지나 시집보내지 않고 옹켜 쥐고 있을 道理는 없다.

아무래도 中當은 熾烈한 企業競爭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指導 育成層은 恒常 이것을 念頭에 두고 하루빨리 溫室밖으로 굳건히 내어 세울수 있는 가장 재빠른 길을 摸索하여야 할 것으로 안다.

다음에 輿論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 人工授精業務에 從事하고 있는 本들의 大體口産科面에 制限된部分的인 診療行爲인데 이것 또한 違法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가볍게 생각하면 受胎率이 나쁜 乳牛에 對해 人情上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이 一但 首肯된다.

그러나 乳牛의 境遇 臨床獸醫師들로 볼 때에는 診療收入比重을 이 分野에 가장 많이 期待하고 있는 性質의 것이기에 自然히 말썽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畜主中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産科的인 措置란 亦是 一定한 臨床獸醫師가 系統的으로 觀察하고 꾸준한 持續的인 治療를 해야만 有益한 것으로 봐진다 다음은 一部 大學教授本들의 遊擊診療活動인데 이진 程度에 따라 一考의 價値가 있을 境遇가 있다.

내가 잘 아는 어느 牧場에서 乳牛하나가 鼓脹症勢를 數日持續했다.

개스를 排出해도 繼續개스는 생긴다.

二回에 걸쳐 診療를한 獸醫師는 慢性鼓脹으로만 다스렸다. 하는 수 없이 이 牧場主는 斷案을 내려 某教授를 찾아갔다. 그 教授는 夜間手術을 하여 腸內異物(鐵片)을 끄집어 냈다. 手術一個月後에 이 乳牛는 거뜬히 압송아지를 낳고 다같이 아무 異常이 없다.

이 牧場에는 從前에 專屬獸醫師를 쓰고 있다가 事情에 依하여 解雇하고만 것이다.

牧場主曰「그前 처럼 專屬獸醫師라도 採用하고 있을 때이면 體面上 外部人士를 불러올 수도 없고 이 소는 꼭 죽인소를 살릴거요」라고

그렇사 한 말이다.

事實上 一般公開業獸醫師의 臨床經驗가지고는 到底히 손을 대지 못할만한 境遇에 高名한 教授本들이 臨床주고 一定한 課程이 끝나면 臨床獸醫師들에게 그 後治療를 引繼해주는 그런 으것함을 누구랴 혈통으랴만 들려오는 말에 依하면 大學教授의 體面에 구김살이 갈 程度로 求乞 診療를 하고 다니는 분이 계시다 한다.

同人의 見地에서 若干 얼굴이 화끈해진다.

알만한 本들의 일기기에 구태여 여러말을 늘어놓고 싶지 않다.

大學教授라는 權威意識에 呼訴하기에 앞서 사랑하는 弟子들의 體面을 위해서도 自重있기를 바란다.

<筆者=本會理事>